

속 기 록

- ☐ 회 의 명 : 제 417차 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2026. 4. 24(금) 14:10 ~ 15:48
-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미라 위 원 (인)
김진각 위 원 (인)
배은주 위 원 (인)
서승미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장미진 위 원 (인)
정갑영 위 원 (인)
이훈경 위 원 (인)
- ☐ 불참위원 : 성기숙 위 원

1. 성 원 보 고

정병국 위원장 : 제417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정 노동조합 비대위원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신다영 과장을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현재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지원대상 결정의 건, 2026년 우수창작공연 재공연지원 공모 추진계획(안). 지금부터는 추경 사업입니다.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 2026년 예술기반청년일자리사업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 202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 202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 2026년 시각예술창작주체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9건과 202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 보고 등 보고안건 2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송시경 사무처장께서는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7일 개최한 제416차 전체회의에 의결 안건 6건이 상정되어서 5건이 원안의결 그리고 1건이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가로 오늘 의결 안건 보고 시작 전 문화예술진흥기금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짧게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제1190호 지원심의운영규정 개정(안)을 사무처에서 잘못 원안의결로 오기 했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 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95호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안건 제1195호 2026년 아르코장편소설창작지원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많은 물리적 시간 소요와 단편 중심의 청탁 구조로 인해서 도전하기 어려운 장편 소설을 집중 지원하고자 만든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창작지원금과 취재비 총 3,000만 원과 창작과정에서는 개별 집필 공간을 제공하고요. 이후 작품 발표 후에는 선정 작가와 작품에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사무처에서 함께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 현재 한국문학번역원과 시놉시스 번역까지 협의가 되었고 이후 완역까지 번역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요 진행 경과를 8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지난 11월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공모계획을 바탕으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동안 지원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원신청서와 시놉시스 초고 200매를 접수 받았고요. 총 6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차는 무기명으로 작품만 뽑아 심사했고 2차는 선정 건의 3배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5월 7일에 결과 발표를 하고 이후 작품 연재와 발표까지 문학지원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장 웹진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심의 건수가 많다 보니까 200매 초고와 시놉스를 모두 심사위원들께서 읽어야 했기 때문에 1차를 3개 분과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했고요. 1차 심의가 원고로만 100% 평가했기 때문에 지역균형제 적용이 불가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아무래도 첫째 사업이고 타 공모전에 제출했던 작품들이 다수 신청될 가능성이 높아서 최근 주요 문학상이나 신춘문예, 장편공모전 등을 두루 보셨던 소설가와 평론가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심의위원은 9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638건 중에 최종 결격을 제외하고 550건을 심사했고 총 2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붙임 명단에서 결정내역과 총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문학지원팀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잘 보완하고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서 소설가들께도 도움이 되고 독자들이 좋은 장편소설을 접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의 때 보고를 다 받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질문이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나영 문학지원팀장 :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96호 2026년 소년소녀합창단 해외공연 지원사업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부터인데요. 20쪽과 21쪽은 지난 전차 회의 때 보고드릴 내용이라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는 지난달에 의결해 주셔서 공모를 진행했고, 총 12건이 신청되었습니다. 22쪽 상단에 12건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쪽에는 그 이후 심의 진행 경과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4쪽을 봐주시면 심의 기준에 따라서 심의 결과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충북소년소녀합창단이 3위까지 선정돼서 각각 1억 원과 9,162만 2,000원 그리고 1억 원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되었고요. 예비로 화성시소년소녀합창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신청액만 나와 있는데 1번과 2번은 총사업비가 대략 1억 5,000만 원으로 신청해서 자부담이 5,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3위인 충북소년소녀합창단은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어서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5쪽과 26쪽은 심의 총평인데요. 대략 예술성 면에서는 아직 어린 청소년합창단이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취지와 현지에서의 안전성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중요하게 심사했다는 총평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소년소녀합창단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나라가 안 적혀 있어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전주는 인도네시아로 아시아권입니다.

왕치선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단년도만 실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 들어와서 밖으로 나가는 공공기금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 액수가 어떻

게 잘 쓰였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저희가 보통 해외사업 같은 경우 서면으로 모니터링도 하지만 필요하면 현지에서 저희 직원이 모니터링 평가를 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단년 사업이지만 필요하다면 현지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가끔 가는데요. 그때마다 모니터링 보고서가 잘 안 맞아서 고쳐서 우수한 점과 개선할 점 그리고 종합적인 것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화 일반으로서 작품에 대해서 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늘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종합예산이 있고, 인력 관련 예산 그리고 지역은 안 나지만 여러 가지 예산 항목들이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들어와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비용을 썼다는 것. 기본적으로 인력이라고 하면 단가가 얼마고 비행기는 얼마라는 게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 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산 항목도 문체부가 해 놓은 항목대로 잘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을 받아도 기부금을 어디에 썼다는 게 잘 나와서요. 차후에는 필요하다면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마 사업 제안서를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컴플레인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양식을 잘해 놓으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엑셀 파일에 4가지가 있으면 숫자가 연결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도 안 되어 있고요. 이번 건 때문에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니,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이니까요. 그 부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기본적으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정산 절차를 거치는 것은 맞는 거죠?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지금 유류세가 굉장히 증가해서 해외프로젝트는 굉장히 부담이 많고 예산의 많은 변동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고요. 증빙 절차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이기는 하지만 집행 절차는 잘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197호 2026년 공연예술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홍승옥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옥 극장운영팀장 : 위원님들 그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자리에서 의결 안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일단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후보 결정에 대한 건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셨던 21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실연심의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공연으로 올릴 작품을 선정하는데요. 이번에는 실연 심의가 어제 끝이 나서 창작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등 3개 분야만 먼저 의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시행하는 창작 주체와의 공동 기획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연이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의무 공연 횟수 준수는 각각 장르별로 상이합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분야의 모든 공연들이 저희 대학로아르코예술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물론 단체가 작품 성향에 따라서 다른 극장을 희망하면 그 부분들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인정하는 방식들입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지난해 1차와 2차 인터뷰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했고요. 이번에 4월 1일부터 4월 5일까지 저희가 아르코꿈밭극장, 고양시 세라세극장에서 창작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등 3개 분야 실연 심의를 했습니다.

창작뮤지컬은 80분의 단독 공연을 통해서 실연 심의가 진행되었고요. 음악과 전통예술 분야는 20분 정도의 쇼케이스 형식의 실연 심의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30쪽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각 분야별 전담심의위원이 지난해에 5인씩 구성되었고요. 3차 실연 심의부터는 예술위원회 사무처에 있는 전담심의관들이 각각 참여해서 총 6인의 전담심의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담심의위원 명단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전담심의위원들에게 주어지는 배점은 80점이고요. 관객평가단이라고 해서 25명 내외의 일반관객들이 20점을 배점해서 심의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선정 방법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쪽 심의 기준입니다.

작품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공공성으로 80점이 배정되어 있고요. 저희 전담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기준입니다. 관객평가단 20점에는 4개 평가 항목을 통해서 관객평가단이 첫날부터 마지막 작품까지 모두 전회차를 관람한 이후에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합산할 때는 전담심의위원 점수를 먼저 합산하고 맨 마지막 결정 이후 관객평가단 점수를 합산해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심의 결과입니다.

총 21개의 작품이 이번 실연심의 대상의 건수였고요. 최종 선정은 11개 작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창작뮤지컬 4개 작품, 음악 3개 작품, 전통예술 4개 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지원 대상자는 창작뮤지컬, 음악, 전통예술 등 각 1개 작품씩 저희가 예비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예비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선정된 단체 중에서

공연을 못 올리게 되었을 경우 저희가 따로 연락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피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음악과 전통예술에는 각각 1인씩 회피 사유 관련해서 회피하셔서 해당되는 분들은 토론과 채점에 참여하지 않으셨습니다.

34쪽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3개를 먼저 발표하는 이유는 창작뮤지컬 분야는 사실 대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발표해야 해당 단체들이 대관을 진행할 수 있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 사항으로는 이번 창작산실 올해의신작 실연 심의부터는 심의위원 점수 공개를 시범 운영하는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은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심의위원들이 비공개로 점수가 공개되고 관객평가단의 평점도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희망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진행하는데요. 이번 선정 대상 건수에서 창작뮤지컬에서는 4개 작품 중에 3개 작품이 동의했고 1개 작품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3건이 선정되었는데 모두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 분야는 특이하게 4건이 선정되었는데 4건 모두 미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해서 결과 발표 때 공개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미동의를 금액을 깎겠다는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아닙니다. 본인의 점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에 대해서도.

김진각 위원 : 이번에 창작산실 지원단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신청 건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아니면 예전 수준인지?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창작산실은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신청을 하고 계시고요. 1차부터 시작해서 최종 결정되는 과정까지는 사실 경쟁률이 10~15% 내외에서 늘 선정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늘거나 줄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사업의 브랜드가 확실하게 구축되어서 단체에 맞게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제가 왜 여쭙봤느냐 하면, 지금 특히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상업 뮤지컬로 도약이 되는 전 단계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창작뮤지컬을 지원받는 단체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지원해 주는 문화재단이나 기업, 정부나 지자체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도 창작산실에서 창

작뮤지컬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팩트를 단체에서 다 인지하고 신청하는 것인지? 아니면 많은 창작뮤지컬을 꿈꾸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수요를 잘 받아들이기에 충족한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가급적 많은 단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뭔가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사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창작뮤지컬 분야가 우리나라 전체 문화예술시장 안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중대형 극장을 기반으로 한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지원 사업이 200억 정도 규모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창작뮤지컬은 예술위원회에서 처음 시작된 사업들이고 이 사업들을 통해서 성공한 작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창작산실 전체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성과를 낸 작품들도 사실 뮤지컬 안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해외 진출까지 했던 작품들이요. 그래서 저희가 신작뿐만 아니라 2차 제작 지원까지 연결하는 지점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현장에서 매년 요청해서 저희가 2024년부터 2차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한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2025년도에 정식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창작뮤지컬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창작뮤지컬 가운데 매니악한 측면을 갖고 만드는 뮤지컬이 대학로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회전문 관객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창작산실은 그런 작품의 경향성보다는 보편적으로 다양한 관객층이 와서 볼 수 있는 작품들, 재작년에 선정되었던 ‘오지게 재미있는 가시나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마니아 관객들로부터는 사랑받지 않는 작품이기는 합니다. 대신 이런 작품들의 강점은 뮤지컬의 관객층을 넓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산실은 그런 관점에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198호 2026년 우수창작공연 제공연 지원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도 홍승욱 극장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 사업들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제가 잠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고 안건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들께 의결 안건으로 올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국회 확정’ 부분에서는 보시는 대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창호 팀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고 의결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저희 기금 운용계획 변동인데요. 표가 2개인데 3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 때 보고드렸던 내용이 되었고요. 국회 확정이라고 되어 있는 게 4월 10일에 국회 확정 단계에서 예결위나 예결 소위

를 거치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58억에서 723억으로 약 235억이 감액되었다는 부분을 봐주세요. 창작지원은 당초에 40억이었는데 20억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간을 빼고 창작지원 쪽이 5억 그리고 공간이 15억으로 배정돼서 이후 보고를 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각예술창작산실도 2억 5,000만 원, 공연예술도 2억 5,000만 원. 대신 공간은 7억 5,000만 원씩 각각 될 것입니다. 예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수단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4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39억에서 34억으로 되었다는 것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람료지원사업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보고드릴 때 별도의 보고 안건으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그대로 보존이 되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예술산업금융지원시범사업융자가 200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200억에 앞선 내용을 더하면 235억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723억의 사업비가 되는데 이 중에 저희 기금으로 들어가는 기금액은 20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체육 기금 전입액이 52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이해하셨죠?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의결해 주신 내용이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고요. 감액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하게 되었고 그 설계안이 오늘 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제부터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2026년 우수창작공연 재공연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이 초연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 12월 말까지 초연 이후 2차 제작을 통해서 레퍼토리화를 하고자 하는 작품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대 지원 금액은 5,0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창작산실의 신작 지원금이 최대 1억 원까지 달하는 것에 비하면 사실은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요. 사실은 추경 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2억 5,0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많아도 7건 내외가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장르별로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4개 분야를 아울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자료 42쪽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이 작은 만큼 의무 공연 횟수는 2회 이상을 반드시 진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등록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작품에 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시 연극은 단체, 무용, 음악, 전통예술은 창작산실과 마찬가지로 개인 및 단체 모두 지원 대상의 문을 열어놓고자 합니다.

제외 대상은 올해 국가 또는 지역재단 등 모든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작품은 모두 제외 대상으로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지원받지 못한 그런 작품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접수는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긴급하게 저희가 교부를 해야 하고 실제 집행할까지 관리를 받는 사업들이라서 4개 분야에 대한 통합심의 방식으로 위원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심의 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20%,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80%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출자료는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김진각 위원님께서 창작을 이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창작 공연의 심의 기준과 재공연 심의 기준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이 있다면, 그냥 여기에서는 서류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정성적인 것보다는 정량적인 게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공연으로 창작지원을 받았을 때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 과연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작품의 예술성을 20%로 넣었는데요. 첫 번째 창작 공연을 했는데 예술성이 거기에서 검증된 것이 올라오는데 또다시 예술성을 본다는 게 과연 맞을까?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작 공연과 재공연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잡음이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위원장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병국 위원장 :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원한 사업만 대상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지원했거나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던 사업들이 다 대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심사 기준은 처음 창작 작품 지원심의 기준을 준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구문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질문을 저도 했거든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프로덕션 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공연이 올라갔던 작품들도 2차 제작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작품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품의 예술성 심사는 어쩔 수 없이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적인 부분도 저희가 당연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은 초연 이후 이 작품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어서 재연을 통해서 작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심의 기준입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계획의 타당성 내용 안에서 개선 및 발전 방향 등이라고 해서 기획 의도와 제작 방향안에 20점을 배점해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 사업들은 불용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예산이라서 12월 말까지 실제 집행이 전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연을 발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대관이 되어 있는 경우는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기준안이 사업계획의 완성도 안에, 계획단계에 부분으로 30점을 배점해서 심의하고자 합니다.

구문모 위원 : 이해가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제시했어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재공연 지원을 받을 때는 정량적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심의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진 위원 : 지원하는 사업들은 기존에 지원을 받은 팀들이잖아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작품들은 이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장미진 위원 : 아예 안 받은 새로운 작품들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예.

장미진 위원 :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추경에 문학은 안 들어갔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문학은 문학관 사업이 따로 있고요. 일반회계로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문학관이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에는 없는 것이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장미진 위원 : 왜냐하면 아까도 보니까 창작 소설의 경우에는 지원율이 3%밖에 안 되던데요. 그러면 위원회의 문학 지원은 너무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한 개선안은 불가능한가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왕치선 위원 : 이 사업에 대해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창작지원사업을 심사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아니요. 따로 구성합니다.

왕치선 위원 : 예. 그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홍승욱 극장운영팀장 : 이 사업은 그 사업과 맥을 달리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들과 함께 적격자지정방식을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문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량적인 부분이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전번호 제1199호 2026년 공연예술창작주체 추가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조용주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이번 사업도 추경 사업이고요, 창작공간 추경 편성 금액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민간 공연장 운영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원 내용은 민간 공연장 기획 공연 비용 및 공간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도 기존 현황은 예산 규모는 25억 원이었고요, 총 23건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경 편성된 7억 5,000만 원을 공모할 예정이고요, 총 10건 내외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51쪽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시공모 대비 변동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로 당초 12개월보다 운영이 축소되고요, 그런 점을 반영해서 수행 조건으로 공동 기획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건을 축소하고 지원 규모도 최소 5,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에서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9,000만 원 이하로 지원 규모를 낮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동일하게 심의 방식은 기존 장르별 심의에서 통합심의로 서류 심의만 진행하는 것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공고문은 54쪽 그리고 운영 사업 현황은 58쪽의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58쪽을 보시면 다년 지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비중을. 단년과 다년을 다 합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내가 그것을 굳이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다년도 지원을 하는데 돈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돈을 쓸 때 너무 융통성이 없어서 쓰는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을 지원하면 처음에는 가볍게 예산을 배분해야 되고 중간에 많이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겠죠. 그런데 이게 잘 안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실 수는 없나 해서요. 제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년도 지원이 중요한 정책 변화이기는 한데요. 그것을 한번 잘 구성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일단 본 추경 공모 건에는 단년 지원으로 내년도 사업 때는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민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1200호 추경 2026년 예술기반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60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34억 3,5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저희가 연수단원사업으로 진행하던 사업이구요. 61페이지부터 보시면 공모개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85억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었고 올해 정시공모 때 365명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추경에 34억 3,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서 275명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640명의 현장 연수단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의 특이한 점은 275명 모두 창작 실연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 저희가 지원 인원 365명 기준으로 봤을 때 기획 행정 쪽 인력이 26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이번에 창작 실연 쪽을 강조해서 창작 실연 쪽의 인력만 275명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6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금 단체의 자격조건에 따라서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까지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민간예술단체 및 공립기관 중 창작 실연 분야에서 활동할 연수 단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저희가 그래서 민간에는 월 216만 원씩 지원해서 6개월 인건비가 지원되고요. 공립에는 196만 원씩 그리고 단체 자부담 2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총 6개월분의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하단의 공모 추진 일정을 보시면 오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월요일부터 5월 12일까지 긴급 공모로 해서 2주간, 2주 공모가 원칙인데 16일간 공모를 하게 되었고요. 결과 확정은 6월에 하고 서면 의결 6월, 결과 발표 6월 하순에 예정하고 단체들이 6월 하순부터 7월까지 인원 채용을 한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단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저희 지원심의 관련해서는 추경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장르 통합심의로 구성하고요. 2026년에 연수단원사업을 심의했던 장르별 위원님들 중에 신청 건수 비율로 인원수를 결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뒤의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궁금해서 여쭙보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지원이잖아요. 혹시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면 인건비 안에 세부 항목이 있을 건데요. 혹시 유용 가능성이 없나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100% 인건비로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16만 원씩 10개월로 2,160만 원을 지급하면 매달 216만 원씩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구문모 위원 : 그냥 수당을 받아서 자율적으로 쓰라고.

정병국 위원장 : 아니요. 월급으로.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월급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사업비가 아니고요.

구문모 위원 : 아는데요. 저희가 출장을 가면 엄청나게 따지는데요. 세부 항목으로, 이슈는 아니고 흥미로워서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그런데 예술단체나 기관들이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지원을 해 주고 일은 예술단체나 기관에서 하라는 겁니다.

구문모 위원 : 이해는 되는데요. 정책적 차원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있나 해서 여쭙보는 겁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세목이 인건비로만 편성할 수 있고요. 회계 검증 수수료나 단체에서 4대 보험으로 내는 금액도 다 단체에서 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본 안전에 대해서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전번호 제1201호 2026년 시각예술창작산실 추가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본 안전은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안전번호 1201호로 추경 시각예술창작산실 우수전시 추가 공모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앞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전시기획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저희에게 나왔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시각예술 분야 발전 기여를 위하여 전시하고 창작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는 목적입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기획과 구현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 정시공모로 25건을 11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최대 단가 5,000만 원을 기준으로 5건 정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기획자와 예술단체입니다.

조건은 정시지원과 동일하게 5년 이상의 기획전시 이력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건당 최소 3,000만 원에서 최대 5,000만 원까지고요. 저희가 정시공모의 경우에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드렸는데 사업 기간을 감안하여 지원 규모를 선정하였습니다.

제외 대상은 공통적인 제외 대상 외에 올해 시각예술창작산실, 창작주체 등에서 지원받은 사업들은 여기에서 선정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공모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20일간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조속하게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6월 서면 의결을 받은 이후에 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심의 기준은 저희가 정시에서 했던 사업과 동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저희 정시와 동일한 사업 수행 역량 30%, 실현 가능성 50%, 계획의 공공성 20%로 볼 예정이고요. 이 사업은 전담심의회원 5인으로 구성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파일로 추가 공고문과 지난 지원 사업의 지원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지원 내용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시각예술 분야의 기획전시 등 국내로 한정된 것은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요. 국내 경기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국내 한정으로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한 분이 로마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응모했는데 작가가 직접 가지 않고 같이 일을 했던 사립미술관에서 응모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기관에 2건 이상을 해 주지 않잖아요. 미술관이 미술관 자체 사업에 우선권을 두고 불이익을 받았다고 컴플레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에서 초청을 받을 정도면 상당한 수준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분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려고 하니까 국내에 한정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김미라 위원 : 저도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심사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예술생태계 연구나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시각예술창작산실, 시각예술창작주체가 참 헛갈린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아마 다음 기수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실 때 조금 더 전체적인 명칭이 직관적으로 될 방법이 없는가? 이것은 모든 장르가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점점 창작산실, 창작주체라는 게 불분명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괄호를 열고 ‘우수전시’, 괄호를 열고 ‘창작공간’ 등의 군더더기 말들이 붙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발전 방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내용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그 이전에는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너무 쪼개져 있어서 오히려 현장에서 자기가 어느 분야에 신청해야 할지를 찾기 어렵다고 해서 카테고리화 한 겁니다. 창작산실과, 주체. 그래서 창작산실(우수전시)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창작산실이 뒤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수전시(창작산실)이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받아들이기가 명확해야 하는데 창작산실이라고만 하면 뭐를 하라는 것인지를 모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런 쪽으로 반영해 보시죠.

구문모 위원 : 그건 명칭인데요. 읽어봤거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인한 시각예술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렇게 쪽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수전시라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글을 쓰게 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불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빨간 카테로리로 만든다고 하면 상황이 안 좋아져서 시각예술 분야의 피해가 어떤 것이라고 아르고는 생각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경쟁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를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결정해야지 지금과 같은 얘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항상 갈등 소지가 있는 것은 미리 계획하고 설정해서 우리가 공감해야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왕치선 위원 : 저도 김미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약간의 고려를 요청하는데요. 저도 저희 장르에 계신 선생님들. 여러 번 지원해서 여러 번 타신 분들의 얘기가 본인이 댔지만 어디에 댔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있으니까 댔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 아직도 주체나 이것은 구분을 못 하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

정병국 위원장 :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요.

왕치선 위원 : 그런데 실은 저도 처음에 와서는 내가 혼동하면서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데 깜빡거리나보다 생각했지만, 젊은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은 더 쉽고 직관적이고, 또 하나 우리 위원회 분들은 늘 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니까 너무 많이 아는데요. 대부분 사람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하기 때문에 늘 초짜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조금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비 예술, 청년 도약 그다음에 창작산실주체로 가잖아요. 그러면 청년 도약에서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기성작가들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다시 한번, 창작주체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가 있고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용어를 카테고리 구분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죠.

또 다른 의견 없을까요?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안건번호 제1202호 2026년 시각예술창작주체 추가 공모 추진계획 (안)입니다.

본 안건은 염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본 안건도 추정사업입니다.

앞서서 의견을 주셨던 창작산실과 창작주체의 용어는 저희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올해 추경에서 7억 5,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요 경과를 표로 정리하였는데요. 2026년 정시공모를 통해서 24억 원 규모에 35건을 지원했던 것을 이번에는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5,000만 원 정액 예산으로 15건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목적에 대해서 앞서 주신 말씀은 잘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시각예술 공간을 운영하는 단체고요. 그 단체가 공간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 일부와 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자격은 정시공모와 동일하게 시각예술 분야의 공간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운영한 이력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이고요. 이 사업의 특이점은 5,000만 원 정액 지원을 통하여 저희가 필수자료로 예산편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93쪽 지원 대상을 보면, 다른 사업 외에도 다른 예산이나 예술위원회가 하는 사업에서 비슷한 성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에 선정된 것들은 모두 다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94쪽 공모 추진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우수 전시와 동일하게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 주 수요일인 4월 29일부터 약 20일간 접수를 받고요. 6월 초 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는 전담심의위원이 진행할 예정이고요. 1차 서류 심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 심의 기준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서 말

씀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를 보시면 정시공모와 동일하게 심의 기준에 있어서 사업 수행 역량 30%, 실현 가능성 50%, 공공성 20%는 동일합니다만, 평가 항목 중에 실현 가능성 부분에 대한 비중을 저희가 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명확한 사업계획이 있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비중을 공간 운영 목표 10%, 계획의 완성도 20%,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20%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의 경우에는 비중이 3:1:1이었는데요. 이번에는 1:2:2의 비중으로 바뀌어서 추경 사업의 성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93쪽을 보면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국공립과 대학미술관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이런 경우는 재원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하고 있고요. 국가 재원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중복지원을 피하려고 제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중복지원을 피한다고요?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기금의 사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진각 위원 : 대학미술관은 왜? 제외를 하는 거죠?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대학미술관도 대학에서 운영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원을 받는 성격이 더 크다고 봐서 제외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대학이라고 하면 국공립과 사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대학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거죠.

김진각 위원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구문모 위원 : 지원 가능 대상을 우리가 어떤 운영 지침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원 대상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립 주체가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체제를 유지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어려운 시점에 있는 업체를 지원한다고 하면 이것과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력으로 3년간 유지할 수 있

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데를 지원한다. 건전한 데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맞는데요. 첫 번째 얘기할 때 추정에서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맞아서요. 그래서 제 얘기는 글을 기재할 때 모순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구문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을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3년 이상을 유지해 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폐간해서 문을 닫아놓고 있다가 이렇게 지원금이 있을 때 지원 받아서 1년을 살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이상 운영이 된 것으로 바꾸는 게 낫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대로 자력으로 했다면 능력이 있는 기관일 것 아닙니까?

염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원 가능 대상에 3번에 “설립 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산권이나 운영권의 권리를 포기하였거나, 공고일 이전 3년간 미술관이 재정적으로 인적 자원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 운영체계를 유지한 경우” 이것은 또 다른 겁니다. 이것은 기업이 지원하는데는 안 해 주는데 이미 기업이 설립했지만, 손을 떼고 미술관이 운영한 데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염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그것은 좀 다른 거죠.

김진각 위원 : 제외 대상 두 번째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부설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운영이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전시를 한다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지원대상에서 빠진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국공립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잘 굴러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대부분 사립대학인데요. 사립대학에서 운영하는 미술관 운영이 불안하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을 국가 지원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결국 대학 당국이 요즘 학생 수도 줄고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되니까 예산 감액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겠어요. 안 해도 되는 예술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나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어떤 인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중요한 기관인데 계속 문을 열어서 활용되도록 해 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사립학교에 대해서는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미술관 관련해서는 지금 문체부 일반회계 문화기반과에서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대학미술관을 포함해서 그쪽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이중으로 될까 봐 그런 거군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예. 그러니까 문예 기금에서 민간 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그쪽도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예술 공간 지원 사업을 할 때 “이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문체부가 일반회계로 직접 지원을 한다면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여튼 고려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알잖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도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미진 위원 : 예산에 대해서 다 끝났으니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장미진 위원 : 제가 오늘 받은 자료를 지금 봐서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번 추경으로 늘어난 예산을 보면 예술창작지원에 20억이 맞는 거죠? 추경으로 늘어난 것은 20억이고 전체는 720억인데 나머지 700억의 예산은 예술 인력 부분이 조금 들어가 있고 나머지 600억 이상이 용자로 나간 게 맞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맞습니다.

장미진 위원 : 이런 식으로 추경이 비슷하게 된 적이 있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작년에 100억짜리가 시각과 전시 관람료로 들어갔고요.

장미진 위원 : 추경예산이 창작지원은 20억 정도고 나머지는 이렇게.

정병국 위원장 : 옛날 코로나 때 그렇게 해서 지원 중심으로 된 적이 있었죠.

장미진 위원 : 그러니까 생활안정자금이나 용자금이 600억으로 대부분이고 예술창작은 20억이라면, 그런데 20억 정도밖에 안 된 적이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만약 이렇게 계속 20억 정도의 예산이라면 기존의 공모 지원도 예술가들이 헛갈려 하는데 20억이 나왔다고 추가 공모를 각 분야로 하면 예술가들 지원은 정말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노력하신다면 차라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셔서 추경을 강력하게 미치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예술가들을 지원하되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경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예술 지원 사업을 만들어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신데요. 문제는 시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7월부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내로 사업을 완성해야 되고 추경예산은 불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장미진 위원 :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항상 있는 것이고요. 예술 지원은 마찬가지로지만 예술가들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새로 설계하고 다시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이것은 전부 다 보면 하던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게 6개월 내에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연 같은 경우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을 보면 회극이라고 하면 전년도부터 시작해도 빠듯하다고 하는데요. 6개월 동안 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연되었던 부분들을 심사해서 레퍼토리화 하는 쪽으로 연장선상에서 갈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충분히 납득은 하는데요. 예를 들면 창작 소설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 지원을 해 주고, 이번에는 없었지만요. 그런 식으로 지원율이 10%, 20%밖에 안 되는데 또 지원하라고 하면 예술가들은 정말 허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요.

정병국 위원장 : 결국은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보면 추경은 그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 수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경이 결정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거죠. 과연 우리 아르코의 입장에서는 이게 진정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장미진 위원님 의견에 이해하고 공감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서승미 위원 : 약간 다른 얘기는 한데 오늘이 마지막 자리니까 한 가지 예술인들이 우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전달하는 것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 명칭의 직관화 이야기는 거의 얘기를 했는데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떤 사업이 되었고 그 사업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진 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정된 사람들끼리라도 네트워킹이나 한 번쯤 오리엔테이션을 해 주면 좋겠다. 물론 힘든 일인 것은 알지만 예를 들어서 다년 지원이라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가 다 모이기도 하니까 자기들의 노하우나 어려웠던 점, 이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자리를 그룹끼리 하던지 사업 별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것을 전달해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좋은 의견이신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다른 때는 모르지만 우리 8기에서는 현장 업무보고를 매년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주 익스프레스

를 오픈해 냈고 공모를 한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해 음부즈만도 실행했구요. 그것을 떠나서 컨설팅까지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관여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좋죠. 제가 그것을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한 이유는 본인들이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컨설팅을 받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습니까?”라고 하면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술인들도 본인이 정말 지원을 받고 싶다면 앉아서 넣어주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찾아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장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듣고 “나는 듣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문의가 필요하면 어디로 문의를 해 달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요. 떨어졌을 때 왜 떨어졌는지 문의하면 음부즈만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컨설팅까지 해 준다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예술인인데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뭘 하는 곳인지도 모르구요.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요?”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다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했는데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일해 온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공개되었고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으면 “왜 내가 떨어지지?”라고 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까워요. 하여튼 간에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기관에서는 끊임없이 정책 고객인 예술인이나 국민들에게 계속 다가가려는 노력은 끊임없이 보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듯이 사업 카테고리를 쉽게 찾아들어오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나눠놓았는데 카테고리로 나눠놓은 명칭이 너무 불분명하고 어렵다는 것은 쉽게 와 닿을 수 있는 것으로 개선해 보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8기 위원들이 마지막으로 고언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배은주 위원 : 저도 마지막 회의라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 다양성과 포용적 예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별도의 카테고리로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쭉 보면 저희 사업안에 포용적으로 들어와서 선정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연도별로 있더라고요. 장애 예술도 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됐고 비수리 친구들도 꾸준히 대학로예술극장에서 키아다라는 국제장애인예술제를 계속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르코가 이렇게 착한 공모 또 문화 다양성과 포용 예술을 하고 있는 기관인데 그것이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고 장애 예술인들에게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지 않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웹진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이나 상하반기로 선정이 함께 통합으로 와서 되어 있는 단체나 예술가들을 서칭하셔서 그런 곳에 홍보도 해 주고 실리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넓은 마음으로 저희가 그런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열려있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을 뿐이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우리 사업에 응모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어떤 측면에서 진짜 장애 예술인이지만 비장애인 이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나는 저기에 가서만 지원해야 해.” 여기는 전혀 벽이 없다. 그래서 그 장애인재단을 만들어놓은 것은 조금 더 장애인들 간에 경쟁함으로써 수월하게 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인데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벽이 되는 부분이 없

지 않아 있죠.

배은주 위원 :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에서는 막지 않고 통합해서 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올 수가 없는 곳인가?”라는 게 있어서 오고 있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9기 위원님들도 더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의결 안건이 남아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들은 추후에 하시죠.

구문모 위원 : 챗봇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르코 같은 경우 시스템에 챗봇이 들어가면 말씀하신대로 오픈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챗봇을,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예술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쓰는 것이고 결산을 제일 힘들어해서 이것을 저희가 AI 전문기업하고 지원신청서를 AI를 활용해서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냐?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그것을 활용해 보자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주연 경영기획본부장 : 2027년도 예산안에 담아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저는 획기적일 것 같아요. 예술인들한테는 지원하고 신청하는 것을 기획사를 안 통해도 거기에 얘기하면 쪽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송시경 사무처장 : 위원장님 지난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은 2010년도까지 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벽이 높다고 해서 분리한 것이거든요. 분리하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어서 안전번호 제2203호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건도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102쪽 2026년 지역예술도약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월 30일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의결된 사업에 대한 공모 결과입니다. 저희가 지역재단들과 도립미술관을 대상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작품을 추천받아서 심의를 거쳐 중앙에서 전시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요. 본 사업에서는 작가의 경우와 제작지원단을 나눠서 선정하는데요. 작가는 62건, 제작지원단은 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중 최종적으로 작가지원은 16건, 제작지원단은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8억 7,6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사업 내용은 기보고를 드린 내용이라서 특별히 드릴 것은 없고요. 심의위원단을 구성하였고 심의위원단의 내용에 따라서 가급적 24개 지역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차 서류 심의를 한 결과 인터뷰 대상을 2배수까지 늘려서 고른 지원을 하고

자 하였으며 모든 지역을 다 선정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14개 지역 중에 12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내역들은 별도로 드렸는데요. 106쪽에 회피가 있었습니다. 제척은 없었는데 회피 내용을 보시면 1차 심의를 할 때는 위원 중에 한 분이 개인적인 업무로 인해서 3건에 대한 사업을 회피하셨고요. 2차 심의 때는 1차에서는 심의하지 않으셨던 분이 참석이 지연되는 사유가 발생하여서 부득이한 회피 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붙임1로 세부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본 건은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다음 주 4월 30일 발표를 해서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정 내역은 108쪽에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 고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 안건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보고에 대해서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민영 시각다원예술팀장 : 116쪽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공모사업 지원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예산은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작은미술관을 신규 조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과 기존 작은미술관의 전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본 건도 지난 1월 30일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1차, 2차 서류와 인터뷰를 통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는 최종적으로 신규 조성 1건과 기존 활성화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첨부로 넣었는데요. 살펴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장 : 보고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7년 베니스비엔날레 제20회 국제건축전 한국관 예술감독 선정 결과에 대해서 최혜주 미술관운영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제가 하겠습니다. 자료 125쪽입니다. 전차 회의까지 계속 보고드

린 바와 같이 2027년도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전시를 계획할 예술감독 선정 절차를 진행했구요. 2027년도 건축전은 125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27년 5월 8일부터 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총 예술감독은 왕○, 류○○ 두 분입니다. 두 분은 부부 건축가이고 중국 항주에서 주로 활동하셨구요. 아마추어 건축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나친 현대화 개발이나 기념비적 건축에 대해 비판적인 정신과 방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예술감독 선정을 위한 추진 과정은 125페이지와 126페이지에 있고요. 먼저 규정에 따라서 건축전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했구요. 건축전 자문위원회에서 예술감독을 선정하기 위한 예술감독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구성 내용은 126쪽에 김○○ 건축가님부터 7인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7인의 위원님들께서 공모를 거쳐서 제안된 건들에 대해서 서류심사 1차 그리고 인터뷰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건축전에 신청한 팀은 20개 팀에 이르렀구요. 전회는 5개 팀이 신청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개 팀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했고 5개 팀으로 압축해서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 11일 인터뷰 심사 대상을 선정하고 3월 31일에 PT심사,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는 126쪽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 이□□ 예술감독이 1순위로 선정이 되었고요. 전시 기획명은 '사라지는 도시, 누적하는 건축'입니다. 그리고 예비로 조○○ 건축가님이 선정되었습니다.

128쪽에는 신청했던 20개 팀의 간략한 내용이 있고요. 130쪽에는 이번에 선정된 이○○, 이□□ 건축가님의 프로필이 있습니다. 그리고 131쪽에는 이번에 선정된 전시기획안 개요가 있고 132쪽과 133쪽에는 심사 총평이 있습니다. 간략히 이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20개 팀의 제안된 내용들이 다채로웠다는 심사위원의 의견이 있었구요. 인터뷰 대상이었던 5개 팀도 아동과 돌봄, 서울의 변화와 소멸, 건축의 내구연한과 순환, 도시 소멸과 인구 감소, 청년 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었구요. 이 중에서 선정된 전시기획안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소멸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각 지역의 대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문제를 전시기획으로 잡은 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진 위원 :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신 이□□님이 현재 공무원인데 작업하시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한신 문화기반본부장 : 그래서 저희가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그쪽에서 확정을 안 해주셨는데 검직 허가를 해 주실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미진 위원 : 지자체에는 미안한 일이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영광일수도 있어요. 또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이제 8기 전체회의는 오늘로 의결 안건과 보고 안건이 다 끝났고 일정만 결정하면 되는데요. 일단 일정부터 먼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기에서 하실 일이지만 이게 마지막 소임인 것 같아요. 왕치선 위원님과 구문모 위원님, 성기숙 위원님은 일정을 조율해 보시고요. 먼저 말씀해 보시죠.

(회의 일정 조정)

정병국 위원장 : 김미라 위원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김미라 위원 : 아닙니다. 3년간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과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저 역시도 성장한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시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고 5월 전체회의는 5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회의종료)